

# 현대 패션에 나타난 체 게바라(Che Guevara)의 아이콘화에 관한 연구

김혜정

한경대학교 의류산업학과 교수

## A Study on the Iconization of Che Guevara Expressed in Contemporary Fashion

Hye-Jeong Kim

Professor. Dept. of Clothing Industry of Clothing Industry,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2005. 4. 18 투고)

### ABSTRACT

Che Guevara spearheading the Cuban Revolution was not only the icon as the revolutionary to the New-leftists of the 1960s advocating the ideology of Marxism but, as the cultural revolutionary, had a tremendous influence on the younger generation living in the digital age Che Guevara take on a figure of both the symbol of the Leftist but the romantic revolutionary because he had the external features such as black beret, red stars, military upper jackets and trousers, beard and pipe tobacco.

In fact, the symbolic image of Che Guevara was made as the popular image by the avant-garde artists and political vanguard forces of the times under the necessity of Cuban government.

Afterwards, the image of Che Guevara has been patronized in making people of aware of the resistant and revolutionary image to capital, power and the power of the media and symbolized as the resistant image to the American capital as well as the revolutionary guerrilla. And his image has continued to be reproduced and symbolized for the commercial and political purposes and as the enthusiastic image of youth culture.

This can be seen as having been created as a new image by the popular culture formed by the development of the cyber culture and mass media in the cyberspace shaped by contemporary 'N' generations. The use of Che Guevara's symbolic image was made in the fashion field as well as in the cultural and artistic circles.

The borrowing of the icon of Che Guevara represented in a fashion field is attributed to his free spirit, and it can be seen that fashion exists as the vehicle for representing both the symbol system and the sign system containing ideologies and texts as the communicator of resistance to the regime and to social issue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commercial iconization of Che Guevara in the 1990s by comparing the ideology of the symbol in the 1960s and the 1990s and inquire into

the borrowing of his image by the fashion domain as well as the fashion worn by him by reference to domestic books and materials on the fashion site.

Thereby, this study attempted to make clear that the borrowing of Che Guevara in the realm of fashion since the 1990s not only contained the meaningful interpretation as the symbolic code in the culture of young people living in a digital era but fashion performs an intervening role in the cultural phenomenon.

Key words: Che Guevara(체 게바라), young culture(청년문화), borrowing of the icon(아이콘의 차용), symbol system(상징체계), sign system(기호체계)

## I. 서론

검은 베레모와 붉은 별, 짙 다물은 입술, 좌익 혁명가들의 상징으로 이용되는 수염과 무언가를 응시하는 눈빛을 한 체 게바라의 포스터와 사진, 티셔츠가 대유행한 적이 있다.

이 초상의 주인공인 체 게바라는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1960년대 쿠바혁명을 이끌어냈으며 신념을 가지고 있는 휴머니스트, 인류애를 행동으로 보여주려 했던 “행동주의자”로서 자유이념을 추구하는 전세계의 젊은이의 가슴속에 지금까지도 살아 숨쉬고 있다.

체 게바라가 추구했던 마르크스주의가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퇴색되었지만 장 폴 사르트르는 체 게바라를 “우리 세계에서 가장 성숙한 인간”이라고 평하였고 프랑스 대통령 프랑수아 미테랑도 당시 “최근 가장 충격적인 일”로 “체 게바라의 죽음”을 들 정도로 1960년대의 유럽 학생운동을 이끌어간 신좌파들에게 혁명가로서 우상이었을 뿐 아니라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문화적 혁명가로 그 영향력은 실로 거대하다고 할 수 있다.

체 게바라의 사망 후 체 게바라를 추모하는 움직임은 문화·예술계에서만 아니라 패션영역에서도 큰 움직임이 있었다. 패션의 측면에서 보면 전 세계 젊은이들이 체 게바라의 얼굴이 그려진 T셔츠를 입고 다녀 “사회과학계에서 성공한 최초의 팬시캐릭터”, “제임스딘이 되어버린 혁명가”란 말이 나올 정도로 당시 입었던 군복과 빨간색 별이 붙어 있는 검은 베레모는 체 게바라의 혁명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다.

체 게바라의 죽음 이후 40년 가까이 지난 오늘에까지 청년문화 속에 체 게바라의 모든 것이 그대로 존재하는 이유가 단순히 대량의 생산과 소비를 전제로 한 상업문화와 대중의 무비판적 수용에 원인한다고 하기엔 부족감이 없지 않다.

체 게바라의 자유정신과 신념 이외에도 체 게바라의 상징적 이미지를 활용한 상품과 행동양식, 심리적 취향이 현재의 청년문화 즉, 기성세대를 비판하고 주류문화에 대해 거부하는 저항적 문화 코드와 적절히 맞아 떨어졌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현재의 대중문화가 상업문화에 예속되어 그 상업문화의 구조인 소비와 문화적 접목을 통해 유통, 확산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체 게바라는 죽은 후 쿠바정부에 의한 우상화를 통해 60년대의 저항운동의 상징이 되었으며 21세기에 와서는 사이버 문화 속의 저항적 이미지의 외형 추구나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전략적 우상화만이 남아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자유정신의 표출이자 저항의 표시로 체 게바라가 그려진 셔츠를 착용하거나 체 게바라를 상징하는 아이템을 활용한 패션을 즐겨함으로써 패션이 체제에 대한 저항의 커뮤니케이션이 되기도 하며 패션자체가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집단적 저항의 기호체계를 상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체 게바라의 혁명가로서의 삶을 조명해보고 게바라의 신념 뿐 아니라 이념이 1990년대 이후 서구 자본주의, 동유럽사회주의의 붕괴와 자유주의의 물결 속에 정치적 목적의 저항적 외형 추구하고 청년문화의 소비 저항적 이미지의 대중

화와 결속되어 있음을 고찰해 봄으로써 체 게바라를 상징하는 기호체계가 패션영역과 결합되어 새로운 소비적 상품이미지의 아이콘으로 재생산되어 확산되고 있음을 밝히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또한 1960년대와 1990년대의 이데올로기의 변화와 시대별 상징이념의 비교를 통해 1990년대의 이데올로기의 외적상징을 분석하고, 체 게바라의 상업적 아이콘화를 고찰해보고자 체 게바라가 착용했던 패션 및 패션영역에서 나타난 체 게바라의 아이콘의 차용 현상을 국내서적 및 패션 사이트의 자료를 활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본 연구를 통해 1990년대 이후 패션영역에서의 체 게바라의 이미지 차용이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의 문화와 정신세계를 대변하는 기호체계를 상징하며 그것이 대중문화 속 상징코드로서의 의미적 해석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패션이 문화현상의 매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 II. 체 게바라와 쿠바의 역사적 배경

체 게바라의 혁명적 동지였던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는 체 게바라에 대해 “진정한 공산주의자이며 정신적 지주로서 갖는 이미지와 힘, 영향력이 오늘날에도 세계 전역에서 더욱 커지고 있다”고 추모사에 할애했다.

체 게바라에게 있어 피델 카스트로와의 만남은 질곡의 삶으로의 진입을 의미했다. 카스트로를 만나지<sup>1)</sup> 않았더라면 의사의 길을 걷게 되었을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Ernesto Che Guevara)는 유물론과 사회주의 이념에 심취해 있던 어느날 1951년 23세의 나이로 남미전역을 여행하게 된다. 그 여행 속에서 경험하게 된 민중의 고단한 삶은 체 게바라로 하여금 평탄한 삶을 버리고 굴곡의 무장 혁명가의 길을 걷게 하였다.

체 게바라는 에르네스토 게바라 데 라 세르나(Ernesto Guevara de la Serna)가 본명으로 카스트로가 친근감의 표시로 체<sup>2)</sup> 게바라라 호칭한 이후부터 그렇게 불리게 된다.

체 게바라로 하여금 민중의 고단한 삶을 경험하

게 했던 쿠바(Cuba)는 섬으로 이루어진 중남미권 국가로 콜롬부스의 신대륙 발견 이후 스페인의 지배 하에 있었으나 1902년 카리브 지역의 이권을 노린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함에 따라 독립을 성취하게 되었으며 배후의 미국자본가들과 마피아와 유착된 바티스타<sup>3)</sup>정권에 의해 민중이 착취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었다.

체 게바라는 피델 카스트로와 쿠바의 공산혁명을 이루기 위하여 저항군의 일원으로써 게릴라수업을 받았으며 특히 쿠바혁명의 성지인 시에라마에스트라 산맥에서의 게릴라 의사로서의 혁명 성공 후 사령관에 진급한다. 이때 체 게바라의 아이콘 중의 하나가 된 별을 검은 베레모에 달게 된다. 계속적인 게릴라 활동은 산타클라라 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서부인 아바나에 입성하게 되어 본토 상륙을 감행한 지 25개월 만인 1959년 1월 3일 쿠바는 해방을 맞게 된다. 그 후 체 게바라는 쿠바정부의 국립은행 총재와 농촌개혁위원장, 산업부 장관을 지냈으며 공산권과 제 3세계를 돌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반대하는 외교활동을 벌이게 된다.

당시 쿠바는 미국이 쿠바 광산의 80%와 토지 50%, 수출의 67%, 수입의 75%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수상직의 카스트로는 미국의 대기업 소유였던 교통, 통신, 농촌개혁법으로 농장을 국유화하였을 뿐 아니라 미국의 소유였던 정유공장까지 국유화함에 따라 미국은 쿠바에 부분적 통상금지(Embargo)와 외교관계까지 단절하게 된다.<sup>4)</sup>

카리브 해에서의 미 해군의 무력시위와 난민들의 무장충돌은 쿠바를 전쟁의 위기 속으로 몰아넣게 되자 소련의 쿠바연안의 미사일 배치로 미국과 소련간의 전쟁의 위기까지 가게 된다. 하지만 소련의 후르시초프와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의 막판 승부로 전쟁의 위기를 모면하게 된다. 이러한 국제적 상황에서 카스트로에 의해 구축된 쿠바 신정권은 미국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대치하게 되었고 반대로 소련과는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반면 마르크스주의자일 뿐 소련 또한 착취의 공모자라고 판단한 체 게바라는 오히려 소련으로부터 독립적인 비동맹 국가들과의 친교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나 결국에는 정치적 노선을 달리하게 된 카

스트로와 결별하게 된다.

그 후 쿠바의 해방이 혁명의 끝이 아니라고 판단한 체 게바라는 모든 지위를 마다하고 콩고와 볼리비아 등지에서 게릴라 활동을 하게 된다.

끝내는 미국이 지원하는 볼리비아에 게릴라 훈련 기지를 세우고자 하였으나 소련의 사주를 받은 볼리비아 공산당의 지원거부와 미군에 의해 지원되는 정부군에 의해 1967년 39세의 나이에 볼리비아의 밀립에서 저격당한 후 바예그란데 인근 공동묘지에 묻히게 된다.

저격당하지 30년이 지난 1997년에야 체 게바라의 시신이 쿠바의 산타마리아에 안치될 수 있었다. 볼리비아 군에 의해 살해된 체 게바라의 시신을 찍은 사진이 볼리비아의 낭카와수라는 도시의 벽에 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체 게바라의 모습은 억압받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상징으로 그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상징으로 전 세계에 퍼졌으며<sup>5)</sup> 미국에서 조차 휴머니즘적 혁명가로 전 세계에 많은 추종자들을 지니게 되었다.

### Ⅲ. 이데올로기의 문화적 코드화와 아이콘화

#### 1. 이데올로기의 대중화와 코드화

문화라는 것은 그 당대의 가치, 신념, 규범과 상징 그리고 취향까지도 내포하고 있으며 현대에 와서의 문화라는 의미에는 취향문화라는 개념이 내포된 대중문화 또는 군중문화, 민중문화를 뜻하는 것으로 대중으로부터 만들어지고 대중에 의해 소비, 유통되는 문화를 의미한다.

특히 N세대<sup>6)</sup>들인 현 청년 문화는 영화, 텔레비전, 잡지, 신문과 같은 매체와 영상, 컴퓨터의 과학기술과 시스템과 같은 매스미디어를 활용한 사이버 공간 안에서 사이버 문화를 이끌어 왔으며 그 속에서 새로운 대중문화를 생산, 확산시킴으로써 일반대중이 문화의 수용자로 대두되는 계기가 되었다.

대중매체를 통해 형성된 대중문화는 새로운 것에 대한 수용과 다양화를 인정함으로써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 재창조하였다. 또한 대중매체에 의한 현상

이 이데올로기화와 이미지화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가치관과 유행을 낳게 되었다.

사실상 체 게바라의 상징적 이미지는 전위적인 예술가들과 정치적 전위세력에 의해 만들어졌다. 당시의 예술과 정치 사이에서 가장 생산적이고 유용한 중개자 역할을 한 것이 사진이었고 알베르토 디아스가 상징적인 체 게바라의 모습을 영상으로 남겨 쿠바정부의 대중적인 이미지를 만들었다.<sup>7)</sup>〈그림 1(左)〉 이 이미지는 게바라가 사망한 이후 1967년에 이탈리아 출판업자 펠트리넬리가 포스터에 ‘체는 살아있다(Che Lives)’라는 문구와 함께 인쇄됨으로써 좌파의 상징으로 이미지화 되었다.

공포감, 경외심, 존경심을 자아내도록 밑에서 위로 찍은 사진촬영 기법은 선전영화나 영웅주의를 묘사하는 장면에 많이 이용된 것으로<sup>8)</sup> 저항적이며 혁명적 이미지가 연상되도록 이 기법이 쓰여졌다.

그 후 체 게바라 포스터는 수 만장이 팔렸고 체 게바라를 우상으로 삼았다. 혁명적 게릴라와 미국자본에 대한 저항적 이미지로 기호화, 상징화 되었으며 상업적인 목적과 정치적 목적으로 또는 열광하는 청년문화의 이미지로 복제되고 기호화 되었다.〈그림 1(右)〉



〈그림 1〉

- (左) 알베르토 디아스, 1960년에 찍은 게바라 사진원판, Che, 2001
- (右) 알베르토 블랑코 그림, 1990년에 그려진 게바라, 체게바라, 2003

미국 샌디에이고의 심리학자 레온 파페르만은 게바라를 따르는 사람과 마이클 조던을 숭상하는 사람의 차이를 지적하였는데 미국의 농구스타 마이클 조던의 숭배자는 단지 나이키 운동화를 사는 것으

로 족하지만 체 게바라의 숭배자는 그가 싸웠던 어떤 것을 '자기화'하기 위해 힘쓴다는 게 심리학자의 분석이었다.<sup>9)</sup>

또한 체 게바라가 상징하는 미국에 대한 반제국주의의 이미지는 민중(people)으로 발생하는 문화로 볼 수 있다. 프랑스의 문화 비평가인 기소르망은 “대개 반미는 미국을 보는 관점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보는 관점에서 나오며 현대 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문화 정체성에 대한 우려가 반미로 표현된다”고 주장하였다.<sup>10)</sup> 즉 자신들의 문화정체성의 표현으로서 민중 문화가 대중문화로 자리하며 이러한 민중에 의한 문화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저항이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영역으로 취급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현대사회에 있어서 저항적 대중문화가 오히려 더욱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체 게바라의 저항적 이미지 또한 대중문화 속 소비문화의 한 모습으로 바뀌었다. 보드리야드에 따르면 소비자는 단순히 상품을 사서 쓰는 게 아니라 상품이 지니는 기호 가치를 소비한다고 하였으며 상품의 브랜드는 이미지를 만들어 주고 다른 사람과 구별시켜 주는 상징이라 하였다. 혁명이 패션이 되어버린 시대 속에 이미지만이 남아<sup>11)</sup> 체 게바라의 이념이나 신념은 사라지고 대중매체나 N세대들에 의해 형성된 대중매체 속 이미지와 기호만이 살아 있는 것이다.

아르헨티나의 화가 릴리아나 포터의 작품 속에서는 체 게바라가 10대를 위한 마키마우스의 형상을 하고 있다.<sup>12)</sup> 이러한 경향이 1990년대 들어 사회 코드화 되어 청년문화 또는 민중문화를 이끌어 가고 있으며 40년 가까이 되어가는 시간을 뛰어 넘어 지금까지도 유행코드가 되고 있다.

또한 현대 대중문화의 한 특징인 무형, 유형의 공간을 넘나드는 사이버 문화의 행진은 상업적인 제작과 유통 그리고 소비의 구조를 따르게 되었고 그러한 구조 속에서 글로벌문화와 글로벌 스타를 만들어 냈으며 그에 따라 형성되어진 대중스타로서의 체 게바라의 이미지만이 남아있다. 이러한 현상을 체 게바라 증후군(syndrome) 또는 체 게바라 현상(phenomenon)이라 하여 자유분방한 무정부주의

자, 메시아적 영웅 출현과 죽은 영웅으로 미화되는 점이 없지 않다.<sup>13)</sup>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서울대 노래패인 밴드 이반(異反)은 ‘체 게바라의 포스터 앞에서’라는 곡에서 대중스타의 모습으로서만 양산되고 있는 체 게바라라는 ‘시체’에 대한 이 시대의 시체 애호증(necrophilia)을 겨냥한 분노와 조롱을 담고 있는 곡으로 자본주의적 스타 시스템의 잔재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이것을 60년대 대중문화 중 약탈되지 않은 마지막 상징인 체 게바라까지도 서서히 현대 상업주의의 약탈대상이 되고 있다.<sup>14)</sup>고 까지 묘사되고 있어 체 게바라의 신념은 사라지고 대중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유희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음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표 1> 이데올로기의 변화와 기호체계로서의 의미작용

1960년대	1990년대 이후	
	의적 코드	기호체계로서의 의미 작용
좌파의 상징	민중에 의한 문화	미국에 대한 반제국주의의 상징
	상품화, 패션화	자본주의, 상업화의 상징
혁명적 게릴라	사이버문화 속 글로벌 스타	청년문화의 우상화, 영웅화
쿠바정부에 의한 대중이미지	마키마우스의 형상화 등	상업적 대중문화로서 유희화

## 2. 체 게바라의 상업적 아이콘화

마르크스주의에 심취하였던 체 게바라는 미국의 식민지 정책에 대해 쿠바의 공산혁명을 이루기 위해 게릴라 무장투쟁으로 항거하였으며 체 게바라가 죽은 후 쿠바정부에 의한 우상화를 통해 60년대의 저항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죽은 지 38년이 지난 오늘 체 게바라는 사이버 문화 속 저항 이미지만의 외형추구나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전략적 정책으로서의 우상화에 의해 세계 곳곳에서 갖가지 아이콘으로 부활하고 있다.

쿠바가 1996년의 해를 ‘게바라의 해’로 정해 중남미에서 반미의 중심이라는 정치적 입지를 굳히려고

하는가 하면, 그가 최후를 맞았던 볼리비아에서는 그의 게릴라 활동지와 그가 사살된 장소를 관광지로 만들어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sup>15)</sup>

쿠바의 중앙 텔레비전은 매일 5분간 체 게바라에 대한 연속기록 영화를 상영하고 체 게바라에 대한 국제심포지엄이 열리는 등 그의 인생을 재조명하는 각종 학술행사도 잇따르고 있으며 '체, 영원한 승리까지'라는 CD-ROM을 비롯해 그의 일기장, 논문, 기타 편지글 등의 출판도 활발하다.<sup>16)</sup>

독일에서는 최근 좌파성향의 각종 잡지와 대표적 시사주간지인 '슈피겔'에서도 체 게바라의 특징을 다루고 있으며 각 방송사에서도 체 게바라를 다룬 다큐멘터리 필름을 방영하였다. 유럽의 체 게바라의 바람은 카스트로와 함께 스페인 마드리드시의 몬주의 공원에서 열린 쿠바혁명기념식에서도 알 수 있다.<sup>1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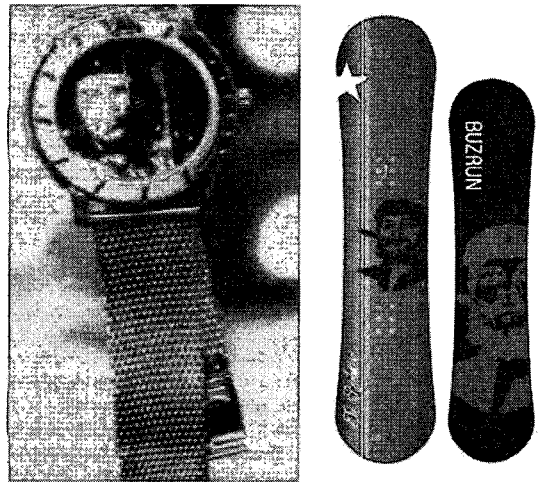
또한 1967년 체 게바라 사망 전후의 쿠바 음악은 물론 '게바라여 영원하라(Hasta Siempre Comandante)'를 주도했던 카를로스 푸에블라(Carlos Puebla)는 체 게바라 헌정곡 한 곡만으로도 세계적인 스타가 되기도 하였다.

영화계에서도 할리우드가 나서서 록 스타 믹 제거와 로버트 레드포드가 체 게바라를 주제로 한 블록버스터를 제작하려 경쟁하였다. 또한 한 의학도가 1950년대 라틴 아메리카를 여행하다 민족의 해방을 이끄는 혁명가 체 게바라의 젊은 시절을 그리고 있는 로드무비 형식의 월터 살레스가 감독한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는 이미 2004년도에 한국에서 상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미디어의 권력은 체 게바라의 삶을 인간이 또 다른 인간을 억압하는 그 무엇에 대해 근본적으로 저항하고자 했던 한 인간의 삶에서 단지 저항의 이미지를 가진 인물로 포장해버렸다는<sup>18)</sup> 주장이 제기되는가 하면 체 게바라의 가족들이 체 게바라의 얼굴이 각종 상품에 브랜드화 되어 판매되고 있음에 분노할 정도로 위스키나 보드카에 등장하였을 뿐 아니라 급기야는 '체'라는 이름의 맥주와 맥주 잔 받침까지 판매되고 있다.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생겨난 대중에 의한 1990년대적 감성이 광범위하게 체 게바라의 아이콘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996년에는 체 게바라의 얼굴을 담은 시계 '체'가 기업광고를 하였고 스키보드에 체 게바라의 초상화를 프린트했을 뿐 아니라 오스트리아의 스키 전문업체 피셔는 이미지 광고에 체 게바라의 얼굴을 이용하여 '스키혁명을 하는 피셔'라고 선전하였다.<그림 2(左), (右)>



<그림 2>

(左) 체 게바라가 그려진 시계, 호세 알베르토 피게로아 디자인, 체게바라, 2003

(右) 체 게바라가 그려진 스키보드

한 광고업자는 "우리는 그의 이념 따윈 필요 없다. 그의 반항적인 이미지와 얼굴만이 관심의 대상이다."라고 하였다.<sup>19)</sup> 그의 전기를 펴낸 외교관 출신 언론인 피에르 칼퐁은 세기말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번져가고 있는 이런 유행을 요절한 록 스타에 대한 추종으로 비유하기도 하였다.<sup>20)</sup>

이런 일련의 게바라 상품화에 대해 교사인 아버나의 로드리게스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체 게바라 기념상품은 그를 기리기 위한 소박한 상징물이었다"며 "그러나 거대기업들이 상품화하면서 그의 정신까지도 팔아먹는다"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대해 월터 살레스 감독은 체 게바라가 대중문화 상징처럼 소비되는 현실에 대해서 "체를 상품으로만 파는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하거나 군대를 팔아먹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고 따

끔하게 비판하기도 하였다.<sup>21)</sup>

<표 2> 체 게바라에 대한 시대적 상징이념과 상업적 아이콘화

시대 내용	1960년대	1990년대 이후
사상적 뿌리	마르크스주의	Post-modernism과 자유주의
사회적 배경	유럽의 변혁시기	서구자본주의와 동유럽사회주의 붕괴
사상적 배경	반독재, 제국주의에 반대	미국에 대해 우호와 반미가 병립
가치관	시대정신의 구현, 혁명영웅	상품적 가치, 청년문화
상징	60년대 저항운동의 상징	저항이미지에 의존
대상	이념과 신념	게바라의 얼굴과 이미지에서 보여지는 반항적 이미지
추종자	체 게바라 자체를 자기화	저항이미지의 외형추구
노선	게릴라 반정부 무장투쟁	이미지의 대중화와 소비지향화

1990년대 들어 자유민주체제의 상징이자 전체주의에 대한 강력한 대항무기로 여겨졌던 매스 미디어의 발달은 대중을 등장시킴으로써 아이러니하게도 마르크스주의의 혁명가 체 게바라가 상업주의의 아이콘이 되었고 할리우드적 소비문화와 서구 대중문화의 상징체계가 되었다. 이제 그의 이미지는 단지 혁명영웅으로서 보다는 인기스타 또는 청년문화의 저항 문화적 코드로 형상화 되어 소비문화 상품으로 전락되었을 뿐이다.

#### IV. 현대패션에 나타난 체 게바라의 아이콘화

##### 1. 체 게바라의 아이콘화에 나타난 패션의 상징적 의미

체 게바라는 미리암 마케바(Miriam Makeba)<sup>22)</sup>와 비틀즈(Beatles)의 음악을 즐겨 들었으며 사진과 문학에 심취했을 뿐 아니라 사진을 찍을 때는 이미지 연출을 즐겨했다. 그러한 심상은 의복착용시에도

나타나 편안하고 자유로운 느낌의 신선함을 추구하여 통기성 좋은 면소재의 올리브그린 색 전투복과 산업부에서 제작된 군화를 즐겨 입었으며 셔츠를 바지 밖으로 내어 입었다.<sup>23)</sup>

게바라가 주로 착용했던 군복은 작업복 셔츠 유니폼(Fatigue Shirts Uniform)의 형태와 필드 자켓 유니폼(Field Jacket Uniform) 형태의 육군복으로 세계 제 2차대전 이후에 주로 이용되었으며 오늘날의 미군 전투복에 원형이 남아있다. 특히, 필드 자켓 유니폼(Field Jacket Uniform)은 주로 작업복, 사파리 자켓 등의 기본 스타일로 전후 활동하는 몇 세대들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sup>24)</sup>

체 게바라가 늘 입었던 전투복과 베레모, 그리고 뇌관 없는 수류탄을 연상하게 하는 빈 탄피 등은 전형적인 게릴라의 모습과 잘 어울리는 외모를 연출했다. 이런 모습은 정치적으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sup>25)</sup> 특히 1959년 아바나에 입성하여 승전고를 올린 체 게바라는 올리브그린 색 군복과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별을 단 검은 베레모를 착용함으로써 더 더욱 게바라의 상징이 되었다. 그 후에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부모를 만날 때도 군복을 입고 있었으며 결혼식에서 초차도 군복을 벗지 않을 정도였다.<sup>26)</sup> 체 게바라는 알레이다와 결혼 후 전권대사 자격으로 우방 길에 올랐을 때도 군복차림을 함으로써 민중들에게 군복이 투쟁하는 혁명가들의 정치적 신념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다.

체 게바라를 상징하는 베레모에 단 빨간 별은 1957년 7월 21일 대위에서 사령관으로 진급되면서 달게 된 계급장으로 혁명 이후에도 체 게바라의 상징이 되었다. 어쩌다 일반 병사모를 이용할 때는 적군으로 오인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할 정도로 베레모를 애용하였다.

정부가 간행하는 홍보물에서의 코르다가 찍은 사진들은 게릴라로서의 체 게바라의 과거를 웅변함과 동시에, 평화 시에는 사회주의 건설에 앞장서는 한 혁명가의 자화상이었으며 이것은 새로운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체 게바라의 이념과도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다.<sup>27)</sup>

체 게바라가 원한 것은 올리브그린 색의 군복의 퍼레이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게릴라전을 위한 것

이라고 생각하여 행동하는 혁명가로 남길 원하였으나 체 게바라의 의도와는 달리 쿠바정부의 정치적 전략으로 인해 코르다가 찍은 사진 속 군복과, 베레모와 별은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과업의 상징이 되었으며 체의 계급을 신화적인 차원으로까지 승화시키는 이미지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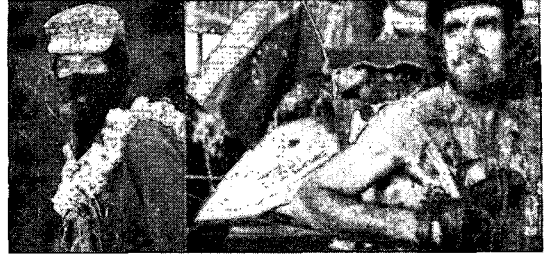
이러한 것들로 인해 사후에는 정치적 전략으로 인해 좌파의 상징으로, 현대에 와서는 자본과 미디어의 권력에 의한 상업적 전략에 따라 상징적 게릴라 이미지만이 유희화 되었으며 특히 외형적 특징인 검은 베레모와 빨간 별, 군복상의와 바지, 턱수염과 파이프 담배를 즐겨 하던 모습 등은 낭만적 혁명가와 대중 영합적 문화를 양상해내는 캐릭터로 존재하고 있다.

## 2. 현대패션에서의 체 게바라 이미지 차용

전 세계의 체 게바라 열풍은 1997년 쿠바에서 열린 14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모인 청년들에 의해서 확인될 수 있다. 그들은 체 게바라의 정치적 신념과 정신적 영혼을 기리고자 체 게바라가 그려진 셔츠와 검은 베레모를 쓰고 체 게바라 깃발을 흔들며 행진하였다.

또한 사바티스타 민족해방 군의 지도자인 부사령관 마르코스조차도 검은 스키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감춘 채 자신의 신비롭고 카리스마적인 게릴라의 이미지를 부각 시킬 수 있도록 체 게바라로부터 파이프 담배와 천식, 턱수염, 포스터 등을 차용했으며<sup>28)</sup>〈그림 3(左)〉 베네스엘라의 우고 차베스(Hugo Chavez)<sup>29)</sup>를 지지하는 지지자들도 게바라와 같이 군복차림에 검은 베레모를 쓰고 친 정부 집회에 참석함으로써 저항적이며 혁명적인 이미지를 연출하여 이미지의 이데올로기화한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3(右)〉

1970년대 조각가와 도예가 등의 예술가들은 체 게바라의 초상을 가지고 영웅이라는 테마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을 시도하여 쿠바 포스터의 미학적 관점이 되었으며 화가 라울 마르티네스는 쿠바에 도입한 팝아트디자인을 통해 가장 대중적인 체 게바라의 이미지를 만들었다.<sup>30)</sup>



〈그림 3〉

(左) 사바티스타 지도자 마르코스, www.1000books.com, 2005.  
(右) 우고 차베스를 지지하는 지지자들, 경향신문, 2004. 2. 11.

남미 출신의 축구영웅 마라도나와 후안베론 뿐 아니라 미국 스포츠 전문채널 ESPN에서 뽑은 지난 25년간 가장 난폭했던 스포츠 선수에 1위를 한 타이슨조차도 체 게바라의 초상을 왼쪽 배에 새겨 넣었을 정도로 체 게바라의 이미지는 저항의 기호로 적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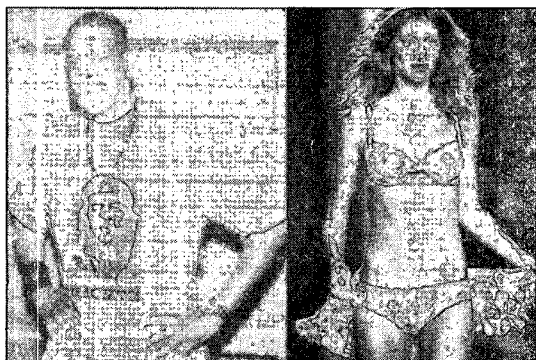
체 게바라는 세계 곳곳에서 갖가지 아이콘으로 부활하였다. 체 게바라의 영웅으로서의 영향력은 팝의 음악적 영역과도 접목되어 있다. 잡지 "Sleaze-nation" 1월 달 표지에 스캇 킹(Scott King)의 그림 코르다(Korda)의 체 게바라 사진과 팝의 혁명가 쉐어(Cher)<sup>31)</sup>의 얼굴이 합성되어진 쉐어 게바라(Cher Guevara)의 모습에서 게바라의 신드롬을 확인할 수 있다.

체 게바라 티셔츠와 베레모, 마우스패드도 곳곳에서 보이는가 하면, 록 스타, 실내 장식가, 패션디자이너들도 끊임없이 그의 유명한 얼굴을 교묘히 이용하였다.<sup>32)</sup>〈그림 4(左)〉

수영복 퍼레이드가 매년 열리는 브라질 패션쇼에서 지젤 번체든(Gisele Bundchedn)은 체게바라의 이미지가 프린트된 비키니 수영복을 선보이기도 하였다.<sup>33)</sup>〈그림 4(右)〉

1980년대의 재현과 90년대 말의 밀리터리 패션의 추구는 막시즘과 Manifesto와 체게바라를 지지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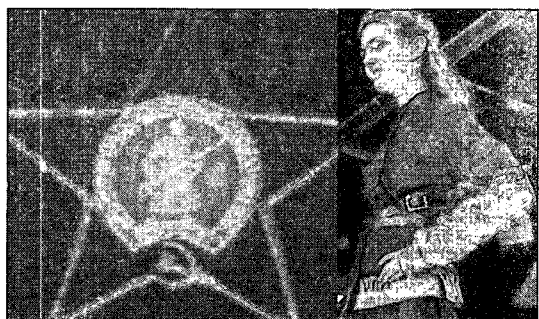
〈그림 4〉

(左) 게바라가 그려진 셔츠를 입은 랩퍼, Jay-Z,  
www.vogue.com, 2004

(右) 게바라가 그려진 비키니, Gisele Bundchedn,  
www.vogue.com.2004

지지자들의 영향을 받아 스카프와 베레모와 레닌의 에나멜 뱃지, 소비엣 깃발과 사회주의를 뜻하는 별 등의 아이템으로 런던 패션 위크(London Fashion Week) 기간에 주목되어졌다.<sup>34)</sup>〈그림 5(左)〉

또한 패션에 있어서는 밀리터리 테마로 체 게바라의 베레모와 함께 모스 그린 바지와 어깨 건장, 더블 버튼, 카고 팬츠, 밀리터리 룩의 무채색 계열과 이데올로기와 정치적 상징으로 보여지는 공산주의의 붉은 깃발이나 유럽 사회주의의 붉은 카네이션에서 연상되는 레드 계열이 선호되었다.〈그림 5(右)〉



〈그림 5〉

(左) 사회주의를 뜻하는 별, www.styl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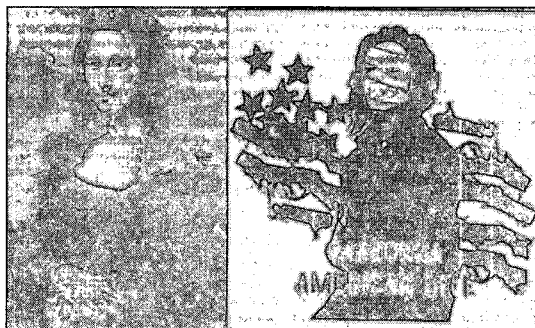
(右) 밀리터리 룩, www.style.com

패션으로까지 확대된 게바라 열풍은 혁명이념보다는 짧은이의 문화에게서 나타나는 상업적이며 소

비지향적 문화에 부흥하여 그 이미지를 즐기고 유통시키는 90년대의 감성문화의 한 단편으로 유토피아적 환상 또는 낭만적 자유분방가로서의 소비적 상품 이미지로서 존재하고있다.〈그림 5(左)〉

그 뿐 아니라 90년대 초에 결성되어 정치적 저항의 메시지를 담아 노래했던 하드코어 록 밴드 RATM(Rage Against The Machine)은 공연 때 체 게바라 얼굴 모습을 담은 셔츠를 입거나 앰프로 사진을 붙였을 뿐 아니라 체 게바라의 베레모에 달려 있던 붉은 별의 이미지를 DVD 자켓에 디자인하고 옷에 부착하는 것을 즐겨했다.

2003년 마돈나의 〈아메리칸 라이프〉의 앨범 재킷 사진에 체 게바라의 베레모와 군복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패션, 섹스, 커리어, 알코올과 수많은 향락들의 아메리칸 라이프와 우리가 처해진 고통과 고뇌를 직시하고, 그것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아냄으로써 체 게바라의 상징적 아이콘인 군복 패션과 별 달린 베레모를 이용하여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그의 자유정신과 이념을 이 미지화하고 있다.〈그림 6(右)〉



〈그림 6〉

(左) 레이네이로 타마요가, 게바라와 합성된 모나리자, Che, 2001

(右) 마돈나의 2003년 앨범 American Life의 재킷 사진,  
www.madonna.com, 2005

이러한 예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패션자체가 집단적 기호체계로서 이데올로기와 텍스트 등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1990년대 이후 패션에 나타난 체 게바라의 아이콘화

상징이념	게바라의 아이콘화	게바라의 이미지 차용
Post-modernism과 자유주의	쿠바의 반미의 중심이라는 정치적 전략화	사바티스타 민족해방군의 부사령관인 마르코스의 이미지 차용
서구자본주의와 동유럽사회주의 붕괴	볼리비아의 관광 상품화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지지자들의 이미지의 이데올로기화
미국에 대한 우호와 반미의 병립	할리우드적 소비문화 및 키치(Kitch)로의 전략한 이미지	패션디자이너의 이미지를 차용한 프린트
상품적 가치로서 소비지향화	광고이미지로서의 상업화	밀리터리 패션의 도입
저항이미지의 외형추구	게바라를 주제로 한 영화제작	스카프, 베레모, 레닌의 에나멜 벤티, 소비엣 깃발, 별 등의 아이템 유행, 하드코어 록밴드의 부대복
청년문화의 추구	미술 및 디자인계의 이미지화 등	음악앨범 재킷의 이미지화 등

## VI. 결론

현대의 N세대들에게서 형성된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이버 문화와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이루어진 대중문화는 대중매체에 의해 새로운 이미지로 재창조되었으며 젊은이들에 의해 주도 되었다. 그들에 의해 형성된 젊은이의 문화(Young Culture)는 현실에 대한 재생산(Reproduction)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여 체 게바라의 저항의 혁명정보보다는 체 게바라에게서 연상되는 외적 이미지를 감성 우위에 존재케 했다.

좌파 운동진영에서 체 게바라를 이상으로 삼은 이후 자본주의 세계에서의 체 게바라는 주로 저항문화의 핵심적인 모티브로 활용되고 있다. 체 게바라의 이미지를 차용한 서구자본주의의 소비지향적 가치와 저항이미지의 외형추구는 상품이 기호가 되고, 기호가 상품이 되는 대중문화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행위는 청년문화로서 기호화와 상징화 그리고 코드화 됨을 보여주고 있다.

소비지향적 가치체계는 체 게바라를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상징적 의미보다는 유평파적 환상이나 신화적 인물로 그려냄으로써 진열품 수준의 키치(Kitch)의 전략한 이미지로 우표, 책, 영화, 음반을 비롯하여 초상화와 티셔츠에 그려져 팔리고 있다.

외형적 특징인 검은 베레모와 빨간 별, 군복상와 바지, 턱수염과 파이프 담배를 즐겨 하던 모습 등은 좌파의 상징이자 낭만적 혁명가의 이미지를 가중시켜 체 게바라가 그려진 티셔츠와 별이 달려

있는 베레모를 비롯한 밀리터리 패션이 계속적으로 대중들에 의해 향유되고 있으며 록스타, 실내 장식가, 패션디자이너들도 끊임없이 그의 초상을 애용함으로써 소비적 상품이미지로 존재하고 있다.

또한 좌파의 상징으로써 사바티스타의 지도자 마르코스나 베네수엘라의 우고차베스를 지지하는 지지자들도 체 게바라의 패션 이미지를 차용함으로써 패션 자체가 체제에 대한 집단적 기호체계로서의 저항의 상징이 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마돈나의 뮤직비디오나 하드코어 록 밴드 RATM의 이미지 차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 이슈들에 대한 저항과 대항의 커뮤니케이션으로서 패션자체가 이데올로기의 표현 양식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 1) 게바라는 1955년 반바티스타 운동의 첫 시작점인 1953년의 몬카다 요새 습격의 실패 후 15년의 유배형을 선고받았으나 2년 만에 여론에 밀려 사면되었던 피델 카스트로와의 만남에서 쿠바 혁명을 모의하게 된다.
- 2) 체라는 명칭은 아르헨티나 사람에게 친근감 있게 이봐! 또는 Hey! 라고 불리는 2인칭 단수로 아르헨티나로 대거 유입해온 알프스 산맥지방 사람에게 즐겨 쓰는 말이다  
안성일 (2004), 혁명에 배반당한 비운의 혁명가들, 서울: 도서출판 선인, p. 488 재인용.
- 3) 백인과 원주민의 혼혈아인 메티스로 군사쿠테타로 참모총장에 오른 후 1944년에 4년 임기의 대통령에 선출되어 대중의 사랑을 받았으나 1952년 재집권에 성공해 1958년까지 독재정권을 휘둘렀다.

- 4) 장 코르미에 (2004). 체게바라 20세기 최후의 게릴라. 은위영 역. 서울: 시공사, p. 72.
- 5) 일다 바리오 · 개리스 켄킨스 , 안드레스 카스티요 인터뷰 (2003). 체게바라. 윤길순 역, 서울: 해냄, p. 401.
- 6)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네트워크에 익숙한 세대로 Network의 N에서 따온 용어
- 7) 페르난도 D. 가르시아, 오스타 솔라 (2001). CHE-한 혁명가의 초상. 안중설 역, 서울: 서해문집, p. 101.
- 8) L. 자네티 (1990). 영화의 이해: 이론과 실제. 김진해 역, 서울: 현암사, pp. 24~25.
- 9) 브레멘 = 최우성 통신원 아바나 = 김상준 / 자유기고가 (1997.10.9). 체게바라 두 번죽이지 말아라. 한겨레 21, 자료검색일 2004. 9. 자료출처 <http://naggu1999.cafe24.com>
- 10) 조선일보 (2004.9.17). 한국 젊은층서 반미 성향 늘어난 건 문화정체성에 대한 우려 표출된 탓. A29.
- 11) 김재현 (1999.10.26), 14. 소비의 사회 '세기를 넘어'. 중앙일보. 19 면(10 판)
- 12) 페르난도 D. 가르시아, 오스타 솔라 (2001). CHE-한 혁명가의 초상. 안중설 역, 서울: 서해문집, pp. 208 ~ 209.
- 13) 안성일 (2004). 혁명에 배반당한 비운의 혁명가들. 서울: 도서출판 선인, p. 488.
- 14) 한겨레 21 (1997.10.9). 체-게바라-억압하는 모든 것에 저항하라. 자료검색일 2004.9.12. 자료출처 [www.unews.co.kr](http://www.unews.co.kr)
- 15) 전진수 통신원 (1996). '민중혁명가' 체게바라를 따라. 자료검색일, 2004.6.8. 자료출처 <http://www.donga.com>
- 16) 한겨레 21 (1997.10.9). 체-게바라-억압하는 모든 것에 저항하라. 자료검색일 2004.9.12. 자료출처 <http://naggu1999.cafe24.com>
- 17) 한겨레 21 (1997.10.9). 체-게바라-억압하는 모든 것에 저항하라. 자료검색일 2004.9.12. 자료출처 <http://naggu1999.cafe24.com>
- 18) 브레멘 = 최우성 통신원 아바나 = 김상준(1997.10.9). 체 게바라 두 번죽이지 말아라. 한겨레 21, 자료검색일 2004.4.9 자료출처 <http://naggu1999.cafe24.com>
- 19) 브레멘 = 최우성 통신원 아바나 = 김상준(1997.10.9). 체 게바라 두 번죽이지 말아라. 한겨레 21. 자료검색일 2004.12.3. 자료출처 <http://naggu1999.cafe24.com>
- 20) 전진수 통신원 (1996). '민중혁명가' 체게바라를 따라. 자료검색일, 2004.6.8. 자료출처 <http://www.donga.com>
- 21) 김은형 (2004.5.20). 게바라와 알베르토의 여행 - 라틴 아메리카 비추는 거울. 한겨레. 자료검색일 2005.4.14. 자료출처 <http://news.naver.com>
- 22) 아프리카 인권운동가이자 1950년대 남아프리카 재즈 아티스트
- 23) 일다 바리오 · 개리스 켄킨스 , 안드레스 카스티요 인터뷰 (2003). 체게바라. 윤길순 역, 서울: 해냄, pp. 279-280.
- 24) 정민정 (2002). 군복과 밀리터리룩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9.
- 25) 페르난도 D. 가르시아, 오스타 솔라 (2001). CHE-한 혁명가의 초상. 안중설 역, 서울: 서해문집, p. 132.
- 26) 안성일 (2004). 혁명에 배반당한 비운의 혁명가들. 서울: 도서출판 선인, p. 502.
- 27) 페르난도 D. 가르시아, 오스타 솔라 (2001). CHE-한 혁명가의 초상. 안중설 역, 서울: 서해문집, pp. 136 ~ 137.
- 28) 멕시코반군 지도자가 영웅이 되기까지, 세계일보, 2003년 11월 1일
- 29) 급진 좌파 권위주의자 (radical-left authoritarian)라고 하거나 좌파와 가진 것이 없는 이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 30) 페르난도 D. 가르시아, 오스타 솔라 (2001). CHE-한 혁명가의 초상. 안중설 역, 서울: 서해문집, p. 201.
- 31) 미국 팝 가수 겸 배우이자 라이브 진행자, TV 스타, 영화감독, 「문스트릭(Moonstruck)」(1987)으로 아카데미상 여우 주연상을 수상했다.
- 32) 일다 바리오 · 개리스 켄킨스 , 안드레스 카스티요 인터뷰 (2003). 체게바라. 윤길순 역, 서울: 해냄, p. 406.
- 33) Gisele's Bikini Moment (2004) Vogue.com, retrieved September, 13, 2004, from <http://vogue.co.uk>
- 34) Red all over (2001.2.19.) retrieved April, 13, 2005, from <http://www.widemia.com>